

# 생태문명 선도·도정 완성도 높인다

## 전북도, '9대 도정 역점시책'·'11대 핵심프로젝트' 역량 집중

전북도가 올해 도정의 키워드로 '생태문명 선도'를 꼽았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재난, 코로나19 등 각종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전북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탄소·친환경차 등 재생에너지, 그린뉴딜 기반의 미래신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도는 2020년을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각 분야에서 결실을 거둔 한해로 평가하고,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발전하는 전북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으로 이는 '9대 도정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에도 반영돼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021년에는 생태문명시대 구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 실현 등 9대 역점시책과 탄소중립체계 구축 및 3대 유해환경 개선 등 11대 핵심프로젝트를 도정 핵심키워드로 삼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을 9개 분야로 나눠 주도면밀하고 충실한 정책추진으로 도정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 실현  
코로나19와 관련해 예방·선별·치료 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재난·재해 초기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동,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발령 가동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상향 가동해 대응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한 전북 구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전략에 맞춰 중장기 탄소전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보호구역 관리, 갯벌 복원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속 3대 유해요소인 악취, 미세먼지, 불법폐기물을 중점 관리해 청정한 전북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으로 희망의 전북 토대 구축  
올해는 재생에너지 등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 추진하고, 도내 연구개발특구 중심의 R&D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며, 신산업 R&D를 적극 발굴해 기술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전북형 그린, 디지털 뉴딜 적극 추진

도의 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변화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분야는 농생명·전통문화 등 전북도만의 특화된 자원과 IT·소프트웨어·홀로그램을 융합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생태자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지역 상황에 맞는 시·군 특화형 일자리 모델도 만들고,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비대면 시대에 맞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키워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업 선도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등으로 농축산물의 고효율 생산체계를 갖춰 농업의 가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3대 정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민공익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속 3대 유해요소인 악취, 미세먼지, 불법폐기물을 중점 관리해 청정한 전북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 생태여행체험 활성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국립안주문화재연구소 운영, 전북가야 유적지 발굴 및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생태관광지를 육성하고, 생태관광 통합브랜드를 활용해 마케팅도 전개할 계획이다. 세계세비엔날레 전용관·대표도서관 건립, 찾아가는 마당공연·미술관 운영 등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 국제태권도대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도 철저히 준비한다고 밝혔다.

▲복지체계 구축과 균형있고 따뜻한 전북 구현

전북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40%까지로 확대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 청년활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치매예방사업 등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의대, 동부권 공립 치매요양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등을 신설해 보건 의료 공공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대 야복선전철, 국도 국지도 확충, 행복복콜 버스 및 택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으로 입체적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부

권 특별회계 지원 확대, 새만금 연계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간 연계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새만금개발과 세계잡버리 철저한 준비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신항만 건설, 새만금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상류와 호수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비점오염원 저감, 축산오염원 관리를 통해 새만금 수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세계잡버리는 기반시설 조성 및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착공과 함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공 개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이 가시적이고 분명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해 도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1대 핵심프로젝트는 ▲탄소중립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와 클러스터 구축 ▲미래 친환경 상용차 산업 본격 추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생태계 구축 ▲군산 등 전북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과 창출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과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청정관광 전북형 여행, 체험콘텐츠 강화 ▲새만금세계잡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준비 철저 ▲새만금 Tri-part 구축과 내부개발 가속화 ▲생활의 과학화와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등이다.

전북도는 2020년 한해는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 개막으로 전북의 몸집을 키웠고, 한국탄소산업 유치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비롯해 새만금 대기업 유치 및 내부개발 가속화 등으로 내실을 탄탄히 다지면서 산라농정 등 농생명산업의 성과, 역사문화 재조명 등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도 드높인 해로 평가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최초 남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

### 공무원 불합리한 차별 방지·안전적 근무환경 조성 기여 기대

남원시의회는 5일 전라북도 최초로 남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박문화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남원시 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난 달 1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조례는 지난 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정된 조례에서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그간 혼란을 빚어온 공무원 용어에 대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로 분명히 정의했으며, 공무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은

따르도록 하는 한편, 후생복지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 차별받지 않도록 공무원의 평등권과 노동권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남원시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을 해야 한다.

박문화 의원은 "도내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가 도내 각 지자체로 확산되어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 생생마을플러스 사업 본격화

### 도, 생태문명시대 대응 '도농융합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

#### 올해 5개 사업 4억2000만원 19개소 마을공동체에 지원

전북도가 올 한해 '생태문명시대 선도의 원년'으로 표방한 가운데 도농융합상생 프로젝트인 '생생마을플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귀농·귀촌 증가와 일명, 반농반X, 농촌에 살면서 반(半)은 자급적 농업 반(半)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X)을 병행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나는 등 농촌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문제가 더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생마을플러스 사업은 정부가 구성하는 '농산어촌 유통피어구현'과 맥을 같이 한다.

생생마을플러스 사업은 기존의 농업·농촌 중심의 삼라농정 정책대상을 도시민과 도시까지 확대하는 도농융합상생 사업이다.

주민 주도의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촌의 폐적함과 다원적 기능 중심의 사업을 발굴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올해 생생마을플러스 선도 사업으로 5개 사업 4억2,000만원을 19개소 마을공동체에 지원한다.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할 5개 사업은 ▲마을평생교육 ▲마을기술사업단 ▲도농상생 힐링프로그램 ▲농촌소셜다이닝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이다.

마을평생교육은 농촌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마을 주민의 학습과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원 동원계 마을을 비롯해 익산(송정마을), 정읍(순촌마을), 남원(동원계마을), 김제(평지마을), 완주(완주 소셜굿센터),

임실(행촌마을), 순창(용내마을) 등 7개 마을을 선정했다.

귀촌인 등 마을주민이 가진 다양한 기술과 재능·경험을 활용한 마을 자체 봉사활동 지원하는 마을기술사업단에는 부안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진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선정됐다.

도시민은 재능을 기부하고, 지역주민은 농촌자원을 제공하며 지속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도 있다.

이러한 도농상생 힐링프로그램으로, 임실 원산마을, 익산 용머리 마을, 남원 나들락 마을이 선정됐다.

지역 농산물과 음식·예술 등을 주제로 도시민 모임을 통해 도시민과 소통하는 농촌소셜다이닝 사업에는 순창 적성공동체, 남원(하주마을), 무주(지원센터), 임실(치즈마을), 순창(적성), 고창(호암마을) 등 5개 마을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에는 장수 공평마을과 고창 입점마을이 선정돼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생태문명시대를 맞아 전북도는 도시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선도사업으로 도농이 함께 상생하는 생생마을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올해 생생마을플러스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상생하는 모델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4월 7일 재·보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

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재·보궐선거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8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한영**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설했던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컨설턴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 “전주매일신문은

#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